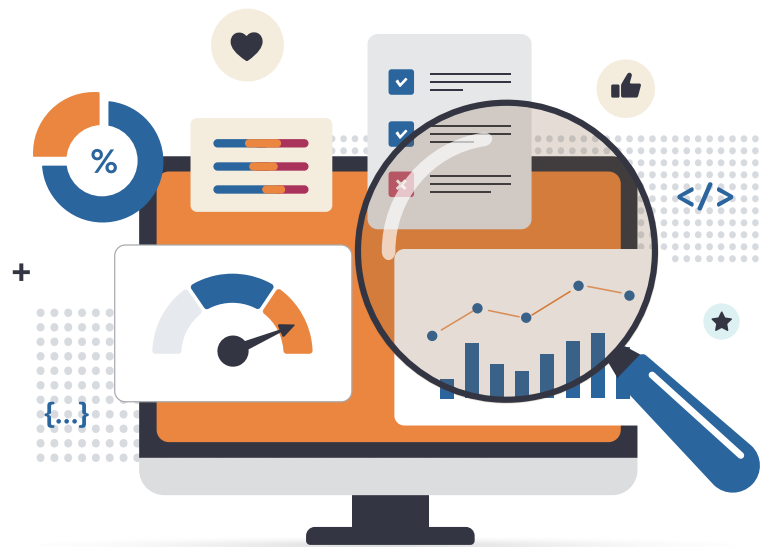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발행일 2026. 7. 12. 발행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편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2026 Vol.09



## 「포용교육 시대, 특수교육이 만들어가는 변화」

김동규 대구대학교 특수창의융합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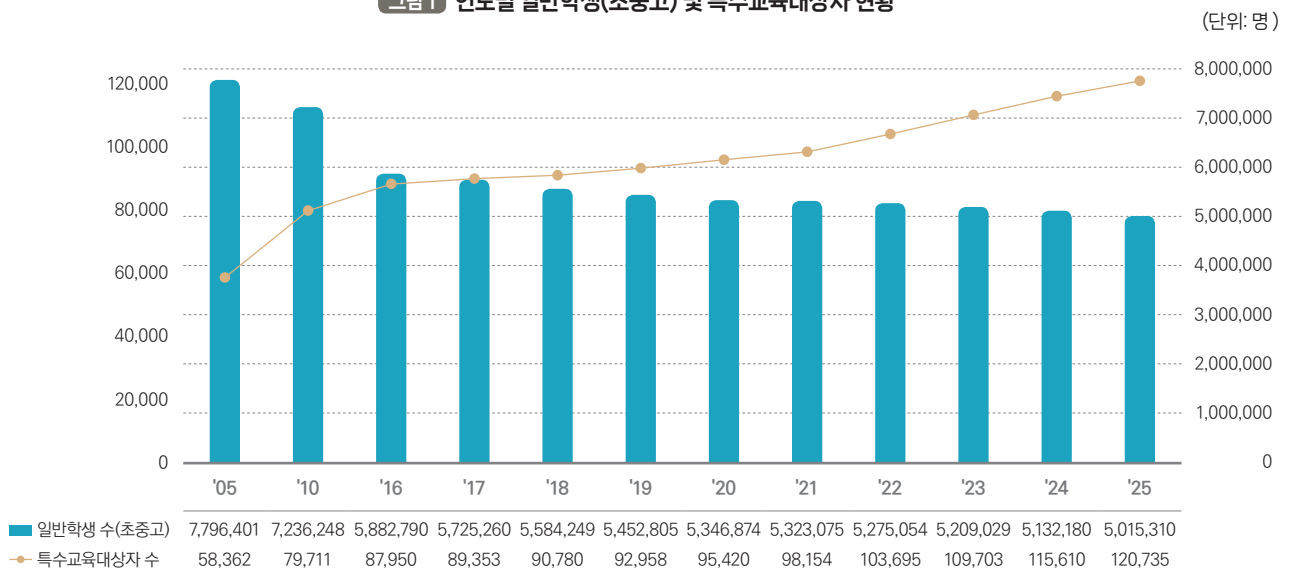
-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 735명으로 10년 전(8만 7,950명)보다 약 37% 증가함.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020년 1.6%에서 2025년 2.2%로 높아졌으며, 이는 조기발견 체계 구축과 교육권 보장 확대, 국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포용교육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수학급(1만 4,658학급), 특수교육교원(2만 8,445명), 특수교육지원센터(197개소) 등 지원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 통합교육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 아울러, 순회교육, 진로·직업교육, 평생교육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특수교육은 학교교육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다양성과 포용이 미래 사회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교육의 방향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제 교육은 모든 학생을 동일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학생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이해하며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의 주요한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고,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발전해 가는 특수교육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 포용교육의 시대, 특수교육이 만들어가는 변화

학령인구 감소는 오늘날 교육계가 마주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과 학급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학생 집단이 있다. 바로 특수교육대상자이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 735명으로, 전년보다 5,125명 증가하였으며, 10년 전 8만 7,950명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욱 뚜렷하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연도별 일반학생(초·중고)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출처: 교육통계, 특수교육 통계(연차보고서)

이러한 증가는 단순히 장애학생 수의 증가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조기 발견과 진단 체계가 정교해지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국가와 학교의 지원 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교육지원 체계 밖에 머물렀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더 이른 시기부터 적절한 지원 체계 안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학생의 차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이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할 교육적 요구로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학생이 자신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는 단순한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포용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특수교육은 무엇을 보장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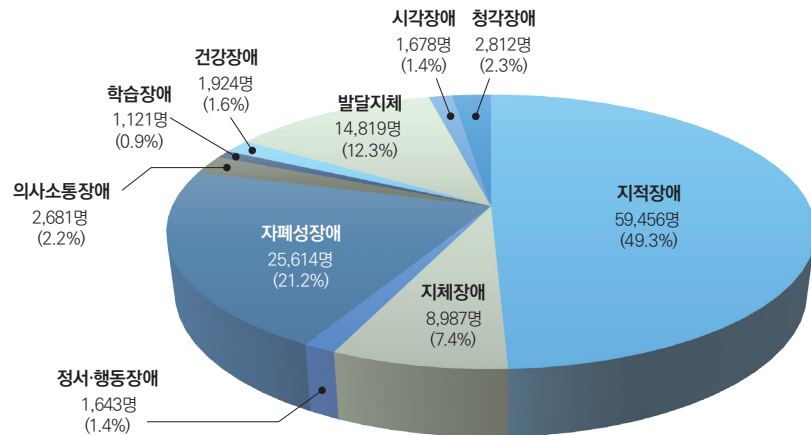
특수교육은 일부 학생을 위한 예외적 제도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대상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우리나라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공과와 장애영아 교육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이 특정 학생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 책임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특수교육은 더 이상 특정 학생만을 위한 분리된 교육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교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는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 또한 특수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정책을 넘어, 우리 교육 전반의 수준과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 데이터가 보여주는 특수교육의 현재

장애 유형별 분포는 오늘날 특수교육이 마주한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2025년 기준 지적장애학생은 5만 9,456명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하였고, 자폐성장애학생은 2만 5,614명으로 21.2%를 차지하였다. 특히 자폐성장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는 최근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원의 내용과 방식이 한층 더 전문적이고 정교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행동중재, 의사소통 지원, 감각특성에 대한 이해, 개별화된 학습 설계 등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세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특수교육은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양적 확대를 넘어, 어떠한 지원을 얼마나 적절하게 제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질적 고도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림 2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출처: 2025 특수교육 통계(교육부)

## 통합교육의 확대와 지원 기반의 강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통합교육의 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12만 735명 가운데 74.1%인 8만 9,440명이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만 9,532명은 일반학급, 6만 9,908명은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반면, 특수학교 재학생은 3만 1,027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특수교육이 분리 중심의 교육에서 또래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통합교육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단위: 명, %)

| 연도   | 특수학교<br>배치 학생 수  | 특수교육지원센터<br>배치 학생 수 |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     |                  |                  | 전체 학생 수            |
|------|------------------|---------------------|------------------|------------------|------------------|--------------------|
|      |                  |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소계               |                    |
| 2016 | 25,467<br>(28.9) | 494<br>(0.6)        | 46,645<br>(53.0) | 15,344<br>(17.4) | 61,989<br>(70.5) | 87,950<br>(100)    |
| 2017 | 25,798<br>(28.9) | 401<br>(0.4)        | 47,564<br>(53.2) | 15,590<br>(17.4) | 63,154<br>(70.7) | 89,353<br>(100)    |
| 2018 | 25,919<br>(28.5) | 418<br>(0.5)        | 48,848<br>(53.8) | 15,595<br>(17.2) | 64,443<br>(71.0) | 90,780<br>(100)    |
| 2019 | 26,084<br>(28.1) | 375<br>(0.4)        | 50,812<br>(54.7) | 15,687<br>(16.9) | 66,499<br>(71.5) | 92,958<br>(100)    |
| 2020 | 26,299<br>(27.6) | 316<br>(0.3)        | 52,744<br>(55.3) | 16,061<br>(16.8) | 68,805<br>(72.1) | 95,420<br>(100)    |
| 2021 | 27,027<br>(27.5) | 261<br>(0.3)        | 54,266<br>(55.3) | 16,600<br>(16.9) | 70,866<br>(72.2) | 98,154<br>(100)    |
| 2022 | 27,979<br>(27.0) | 254<br>(0.2)        | 57,948<br>(55.9) | 17,514<br>(16.9) | 75,462<br>(72.8) | 103,695<br>(100)   |
| 2023 | 28,942<br>(26.4) | 294<br>(0.3)        | 61,993<br>(56.5) | 18,474<br>(16.8) | 80,467<br>(73.3) | 109,703<br>(100)   |
| 2024 | 30,027<br>(26.0) | 363<br>(0.3)        | 65,966<br>(57.1) | 19,254<br>(16.6) | 85,220<br>(73.7) | 115,610<br>(100)   |
| 2025 | 31,027<br>(25.7) | 268<br>(0.2)        | 69,908<br>(57.9) | 19,532<br>(16.2) | 89,440<br>(74.1) | 120,735<br>(100.0) |

학교 현장의 기반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96개교, 특수학급은 1만 4,658개이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97개, 특수교육 교원은 2만 8,445명,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1만 6,935명에 이른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 기반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2025년 특수교육 지원 기반 현황**

| 구분        | 규모      | 비고              |
|-----------|---------|-----------------|
| 특수학교      | 196개교   | 전국 국·공·사립 포함    |
| 특수학급      | 14,658개 | 일반학교 내 설치       |
| 특수교육지원센터  | 197개    | 진단·평가·순회교육 등 지원 |
| 특수교육 교원   | 28,445명 | 특수학교·학급·지원센터 합계 |
| 특수교육 지원인력 | 16,935명 | 교육활동 지원         |

이제 통합교육은 단순히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협력하고, 학교가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며, 필요한 지원이 교실 안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통합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다. 통합교육의 내실은 배치 자체보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과 지원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의 질적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에는 188개의 통합교육지원단이 운영되고 있고, 장애 유형별 거점지원센터는 54개가 운영 중이다. 또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협력적 통합교육 모델인 정다운학교는 2026년 328교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통합교육은 단순한 배치를 넘어, 학교 구성원 간 협력과 지원 체계의 내실화를 바탕으로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학교를 넘어 삶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장기간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질병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의 실천 사례이며, 특수교육이 학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교육적 요구에 맞춘 유연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특수교육은 오프라인 중심의 지원을 넘어 디지털 기반 서비스로 확장되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의 접근성과 교육지원의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 지원서비스인 ‘온맘’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인 '에듀에이블'은 장애 유형별 교육자료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수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원격교육 플랫폼, 온라인 연수, 디지털 학습자료 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특수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이 교실 안의 수업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학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지원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특수교육 관련 홈페이지

|                                                                                                                                                                                                                                                                                                                                                                                                                                                   |                                                                                                                                                                                                                                                                                                                                                                                                                                                                                                                                   |
|---------------------------------------------------------------------------------------------------------------------------------------------------------------------------------------------------------------------------------------------------------------------------------------------------------------------------------------------------------------------------------------------------------------------------------------------------|-----------------------------------------------------------------------------------------------------------------------------------------------------------------------------------------------------------------------------------------------------------------------------------------------------------------------------------------------------------------------------------------------------------------------------------------------------------------------------------------------------------------------------------|
| <p><b>온맘 (https://www.nise.go.kr/onmam)</b><br/>[장애자녀 부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이드 제공</li> <li>• 건강·영양교육, 행동지원, 부모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온맘TV 영상 서비스 운영</li> <li>• 장애자녀 양육 관련 지원 제도, 정책, 기관 정보 및 최신 소식을 통합 제공</li> <li>•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지원 시스템</li> </ul>           | <p><b>에듀에이블 (https://www.nise.go.kr/eduable)</b><br/>[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온라인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li> <li>• 교사·학생·학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와 대체자료를 통합 지원</li> <li>• 시·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li> <li>• 특수교육 현장의 수업 전문성 향상과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지원에 기여</li> </ul>                                                                                           |
| <p><b>평생배움세상 (https://www.nise.go.kr/lifelong)</b><br/>[장애인 평생교육 온라인 학습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문해, 직업, 인문·교양 등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li> <li>•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와 교수·학습 자료 지원</li> <li>•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와 교·강사를 위한 교육자료 및 연수 콘텐츠 제공</li> <li>• 장애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자립,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플랫폼</li> </ul>  | <p><b>스쿨포유 (https://es.s4u.kr)</b><br/>[건강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원격수업 지원 시스템</li> <li>• 초·중·고 교육과정에 맞춘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화상수업을 제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온라인 담임교사 배정, 학습관리, 출결관리 등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를 운영</li> <li>• 학교와 연계한 원격수업 이수 결과를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li> <li>•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생의 학교 복귀와 교육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li> </ul>  |

## 배움에서 자립으로 이어지는 특수교육

특수교육의 성과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수교육은 학령기 학생을 위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자립과 사회참여, 취업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의 특성과 적성에 맞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공과와 학교기업,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전공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1~2년 간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2025년 전공과를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167개교,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33개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44개교에 이른다. 학교기업은 실제 사업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직업역량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취업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2월 졸업 기준 고등학교 졸업생 중 58.9%가 대학 및 전공과에 진학하였으며, 전공과 졸업생은 2,240명 중 1,137명이 취업해 51.7%의 취업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특수교육이 단순히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2025년 2월 졸업 기준)

(단위: 명, %)

| 구분   |           | 졸업자 수 | 진학                |      | 취업    |      |
|------|-----------|-------|-------------------|------|-------|------|
|      |           |       | 진학자 수<br>(대학/전공과) | 진학률  | 취업자 수 | 취업률  |
| 고교과정 | 특수학교 고교과정 | 2,036 | 1,216             | 59.7 | 84    | 10.2 |
|      | 고등학교 특수학급 | 3,425 | 1,916             | 55.9 | 494   | 32.7 |
|      | 고등학교 일반학급 | 1,080 | 722               | 66.9 | 49    | 13.7 |
|      | 소계        | 6,541 | 3,854             | 58.9 | 627   | 23.3 |
| 전공과  | 특수학교 전공과  | 2,157 | 37                | 1.7  | 1,081 | 51.0 |
|      | 고등학교 전공과  | 83    | 2                 | 2.4  | 56    | 69.1 |
|      | 소계        | 2,240 | 39                | 1.7  | 1,137 | 51.7 |
| 계    |           | 8,781 | 3,893             | 44.3 | 1,764 | 36.1 |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 / 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특수교육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 특수교육은 보호 중심의 지원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 모두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하다. 첫째, 행동중재와 정서·사회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자폐성장애허생 증가와 함께 긍정적 행동지원(PBS)과 전문적 중재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행동중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문인력 배치와 학교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별화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과 AI 기반 개별 맞춤형 지원 도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 기기와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하며, 학습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장애학생의 배움은 졸업과 동시에 끝나지 않는다. 성인기 이후에도 배움과 자립, 사회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직업교육,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연계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25학년도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총 1,004명이 대학에 입학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96개로 확대되었다. 앞으로는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경계선지능인과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의 연계까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수교육이 학교교육을 넘어 성인기의 배움과 자립, 사회참여까지 지원하는 생애주기형 교육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경계선지능인과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의 발전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누구도 배움에서 배제되지 않는 학교, 학생의 차이를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교육, 그리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결국 특수교육이 만들어 온 변화는 우리 교육 전체가 보다 넓고 깊은 포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교육은 모든 학생을 같은 기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도 특수교육은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우리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특수교육과 함께 그려갈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기대한다. 

#### 참고자료

- 교육부(2026) 특수교육 운영계획
- 교육부(2016~2025) 특수교육 통계
- 교육부(2016~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부(2023)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